

## 고고학 해석의 지평 넓히기\*

- '고고학 자료'에 대한 다양한 인식 검토 -

고 일 흥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1. 들어가며

고고학에서 '해석'이란 '고고학 자료로부터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고학 자료'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과거의 물질적 흔적으로,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되는 것인가? 아니면 고고학자가 과거의 물질적 흔적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인가? 또한 이러한 고고학 자료의 '의미'는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즉,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L0016)

주제어: 고고학 자료, 해석, 문화사 고고학, 과정주의 고고학, 신고고학, 행위고고학, 다윈 진화고고학, 탈과정주의 고고학, 맥락적 고고학,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규정적' 접근

The archaeological record, interpretation, culture-historical archaeology, processual archaeology, post-processual archaeology, the New Archaeology, behavioral archaeology, Darwinian evolutionary archaeology, contextual archaeology, phenomenological approaches to the landscape, a 'structuring' archaeology

의미는 고고학 자료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고고학 자료에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 또한 고고학 자료와 그 의미의 관계는 인과적인가 아니면 자의적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고학 자료가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고고학 연구의 전략과 유의미한 해석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실 문화사 고고학, 과정주의 고고학, 그리고 탈과정주의 고고학의 본질적 차이도 고고학 자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각각의 경향을 규정하는 이론적 입장과 해석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고고학 자료와 그 의미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시각은 과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각각의 고고학 경향이 추구하는 바가 왜 서로 다른지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고고학 자료와 그 의미의 문제는 고고학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사항으로, 특히 한국고고학의 담론 속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고고학 경향들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순차적으로 정착된 영미고고학에서와는 달리, 한국고고학에서는 문화사 고고학과 과정주의 및 탈과정주의 고고학의 제 접근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어 아직은 편치 않은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고고학 자료와 그 의미의 관계를 중심으로, 또한 그로부터 비롯되는 해석의 방법을 중심으로, 입장들의 차이를 검토하고, 특히 그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이 진행된다면, 동일한 자료에 대해 내려지는 서로 다른 해석들이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단지 그 초점이 서로 다른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틀림’이 아닌 ‘다름’에 대한 인식

이 정착된다면, 이 다양한 접근들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공생의 가능성 모색을 위한 이론적 검토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고고학 자료’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패트릭(Patrik, 1985)의 저작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고학사의 틀에 맞추어, 문화사 고고학, 과정주의 고고학의 제 접근들(신고고학, 행위고고학, 다윈 진화고고학), 그리고 탈과정주의 고고학의 제 접근들(맥락적 고고학,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규정적 접근)에서 고고학 자료와 그 의미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고고학 해석의 전략과도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고고학에서 현재 수용되고 있는 다양한 고고학 접근들의 해석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연구자마다 자신이 수용하고 있는 고고학 접근의 해석적 한계와 다른 접근들의 해석적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인지한다면, 서로 다른 접근을 견지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더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상생의 관계맺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고고학 자료’, 고고학 담론의 중심에 서다

고고학 자료의 성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패트릭(Patrik, 1985)의 논문 「고고학 기록이란 존재하는가?」(Is there an archaeological record?)에서부터 진행되었다. 1985년에 나온 이 논문에서 패트릭은 신고고학과 당시 새로이 등장한 구조주의적·맥락적 고고학 사이의 몇몇 논쟁점을 명확히 하고자 ‘고고학 기록’(archaeological record)이라는 것에 대해 검토했

데, 이 시도는 한국 고고학자들이 흔히 ‘고고학 자료’라고 부르는 개념에 대한 재고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패트릭은 우선 영어권 고고학에서 ‘archaeological record’라는 용어가 이론적 엄밀함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이 고고학자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sup>1)</sup> 아울러 고고학 자료에 대한 이러한 서로 다른 이해가 고고학 증거(archaeological evidence)로부터 의미를 도출하는 방식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방식을 기준으로 고고학 자료를 인식하는 두 가지의 모델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고고학 자료를 일종의 화석으로 보는 물질적(physical) 모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고고학 자료를 말 그대로 일종의 문헌으로 보는 문헌적(textual) 모델이었다.

고고학 자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듯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을 ‘화석’과 ‘문헌’에 비유한 패트릭의 논의는 이후 고고학 자료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이론적 틀을 마련해 주었고, 본 논문도 그러한 틀을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패트릭의 논의와 관련해서 좀 더 주목할 만한 사항은, 고고학 자료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와 그에 따른 고고학 유추의 차이가 신고고학과 구조주의·상징·맥락 고고학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이다. 즉, 그는 ‘고고학 자료’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각각의 고고학 경향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보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고고학과 초기 탈과정주의 고고학의 많은 특징들이 - 예를 들어, 신고고학에서 환경에 대한 문화적응을 강조한 점이나 탈과정주의 고고학에서 이데올로기나 상징체계를 강조한

1) 패트릭에 의하면 영어권 고고학에서 ‘the archaeological record’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1) 과거의 물질적 퇴적물(material deposits)을 담은 용기, 2) 물질적 퇴적물들의 총체, 3) 개별적인 물질적 흔적(material remains) 혹은 그것들의 총체, 4) 고고학 샘플들(archaeological samples)의 총체, 5) 고고학 발굴 보고서(Patrik, 1985: 29-30).

점 등 -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고고학 자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고고학 담론의 중심에 ‘고고학 자료’를 세워놓은 패트릭의 이러한 시도는 이후의 이론적 논의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배렷은 새로운 해석적 접근을 제창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자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설파했다(Barrett, 2001: 156). 따라서 본고에서도 현재 한국고고학에서 수용되고 있는 다양한 고고학 접근들에 대해 검토하는 데 있어,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3. 문화사 고고학의 자료 인식

고고학 자료의 성격을 다룬 패트릭의 논의에서 문화사 고고학의 자료 인식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그 논문의 주된 목적이, 위에서 설명했듯이, 과정주의 고고학과 그 이후 등장한 초기 탈과정주의 고고학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패트릭이 고고학자가 아닌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화사 고고학의 자료 인식은 어떠한가?”라는 - 고고학자라면 어쩌면 지극히 당연했을 -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문화사 고고학의 자료 인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화사 고고학의 연구 목적은 ‘고고학 문화’(archaeological culture)를 확인하고 그것의 시간적, 공간적 전개 양상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그 고고학 문화를 남겼던 실제 과거 ‘문화’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한 그 과거 문화의 공시적, 통시적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고학 문화와 - 즉, 문화사 고고학에서 추구하는 ‘의미’와 - 고고학 자료의 관계는 어떠한가?

차일드에 의하면, 고고학 문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잔존물의 — 토기, 도구, 장신구, 매장 의례 잔적, 집 형태 — 특정 형식들이 항상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되풀이됨을 발견한다. 이렇게 공반되는 요소들의 복합체를 ‘문화 집단’ 혹은 단순히 ‘문화’라고 일컫는다.”(Childe, 1929: v).<sup>2)</sup> 다시 말해, 고고학 문화는 일련의 물질적 표현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물질적 표현물은 고고학 자료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사 고고학의 경우, ‘고고학 문화 = 과거의 물질적 표현물 < 고고학 자료’라는 수식이 성립되는 만큼, 고고학 자료의 ‘의미’는 그 자료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되는 고고학 문화가 고고학 자료에 내재해 있다는 설정은 구체적인 해석의 측면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 고고학의 예를 들자면, 이는 ‘용담댐 수몰 지구의 농산 유적에서 발견된, 송국리형 토기가 출토된 송국리형 주거지’라는 고고학 자료를 통해 그러한 형식의 토기와 주거지를 포함하고 있는 소위 ‘송국리 문화’라는 물질문화 복합체를 생산해 냈던 집단이 한때 그 지역에 존재했음을 — 그것도 추가적인 추론의 과정 없이 —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고고학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이러한 ‘고고학 문화’는 과거 사람들의 ‘실제 문화’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문화사 고고학에서는 ‘규범적 문화관’(normative view of culture)을 견지하고 있는데(존슨, 2009: 65), 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문화를 ‘공유되는 규범/관념들의 집합’으로 보는 시각이다.<sup>3)</sup> 그런데 문화를 구성하는 규범/관념들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실현되고, 그러한 인간의 행위는 물질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바

2) “We find certain types of remains—pots, implements, ornaments, burial rites and house forms—constantly recurring together. Such a complex of associated traits we shall call a ‘cultural group’ or just a ‘culture.’”

3) 이 시각에 의하면, 가령 ‘한국 문화’는 ‘집 안에서는 신발은 신지 않는다’, ‘고기는 그 자리에서 구워야지 맛있다’ 등과 같이 소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규범이나 관념들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로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과거의 물질적 표현물로 이루어진 고고학 문화가 과거의 실제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다.<sup>4)</sup>

고고학 자료의 의미가 이렇듯 자료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문화사 고고학에서는 해석의 과정, 즉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문화사 고고학자는 고고학 자료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하고, 그것의 시공간적 맥락을 충실히 확인하는 것을 해석의 목표로 삼으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고고학 자료로 구성된 ‘고고학 문화’가 고고학자가 찾고자 하는 일차적인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고학 문화가 충실히 복원될 경우, ‘물질적 표현→행위→규범/관념→문화’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고고학자가 추구하는 또 다른 의미인 과거의 실제 문화가 언제 어디에서 존재했는지의 여부까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고고학 자료로부터 확인되는 과거의 실제 문화는 너무나 정적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 얻는 정보도 너무나 단순하다. 왜냐하면 문화사 고고학자들이 고고학 자료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바에는 과거 문화의 물질적 표현물을 유도했던 관념이나 규범, 그리고 그러한 관념/규범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두고 신고고학자들은 문화사 고고학이 과거 문화에 대해 기술만 할 뿐 설명은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던 것이다(존슨, 2009: 80). 즉, 그들은 문화사 고고학이 고고학 자료로부터 너무나 제한적인 의미만을 찾는 데에 불만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과정주의 고고학에서는 고고학 자료에 대한 훨씬 더 적극적인 해석이 시도되었는데,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자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찾아내는 새로운 해석의 방법이 필요했다.

4) 계속 예를 들자면, 1000년 후의 고고학자들은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 놓는 행위의 물질적 산물인 ‘현관’과 먹는 그 자리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의 물질적 산물인 상 한가운데에 박혀 있는 ‘불판’을 통해 ‘한국 문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4. 과정주의 고고학의 여러 접근들과 그 자료 인식

‘과정주의 고고학’ 혹은 ‘과정고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현대 고고학의 경향은 사실 하나의 단일한 강령으로 볼 수 없다. 그 안에는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예를 들어, 문화적 상이성을 포착하는 작업의 중요성, 문화 아체계들의 성격, 그리고 심지어는 연구의 목적 그 자체—의견의 불일치가 있으며(트리거, 2010: 397-403),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과정주의 고고학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서로 경쟁적인 접근들의 등장을 가져왔다. 이 다양한 접근들은 고고학 자료로부터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고고학 자료 또한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그 결과 해석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강점과 약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선 ‘과정주의 고고학’ 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신고고학에 내포된 고고학 자료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 다음, 그로부터 분화·발달된 행위고고학과 다윈 진화고고학에서도 고고학 자료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특히, 고고학 자료와 그 의미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해석적 한계와 가능성에 주목함으로써 각 접근의 유용성에 대해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 4.1. 신고고학의 자료 인식<sup>5)</sup>

신고고학에서는 과거에 작동했던 인과적 조건들이 고고학 자료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sup>6)</sup>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고학 자료를 통해

5) 본고에서는 트리거(2010)의 입장을 따라 행위고고학과 다윈 진화고고학을 과정주의 고고학의 큰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정주의 고고학(혹은 과정고고학)’이라고도 부르는 접근을 특별히 행위고고학 및 다윈 진화고고학과 구별해서 언급하고자 할 때는—이 소제목에서 같이—‘신고고학’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겠다. 그 밖의 경우에는 편의상 ‘과정주의 고고학’으로 쓰도록 하겠다.

6) “고고학 자료는 … 과거에 작동했던 인과적 조건들의 충실한 흔적으로, 그 인과적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사라진 문화체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sup>7)</sup> (Binford, 1962: 219)까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화체계에서는 일련의 인과적 조건들이 존재하고, 이 조건들은 다시 일련의 사건들을 야기하며, 이 사건들은 물질적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들이 바로 고고학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신고고학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즉, 고고학 자료로부터 찾아지는 ‘의미’가—이러한 사건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들을 유발했던 인과적 조건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조건들을 함유한 과거의 문화체계의 작동 (특히 변동) 양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경우 고고학 자료의 의미는 자료에 내재해 있기보다는 몇 단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패트릭(Patrik, 1985)이 과정주의 고고학의 이러한 자료 인식을 두고 ‘화석 기록’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으므로,<sup>8)</sup> 여기에서도 고고학 자료와 그 ‘의미’의 관계를 삼엽충(三葉蟲) 화석의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삼엽충 화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1) 과거에 삼엽충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 자체. 2) 화석의 발견 지점과 발견 층위를 바탕으로, 삼엽충의 존속 기간과 분포 범위. 3) 삼엽충의 생존 조건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삼엽충 화석이 포함된 지점의 과거 당시의 상황(예를 들어, 그곳의 물이 담수였는지 바닷물이었는지에

조건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The archaeological record... is a faithful remnant of the causal conditions operative in the past, and our task is to understand those causal conditions)(Binford 1981: 200).

7) ‘systematic and understandable picture of the total extinct cultural system’

8) 화석은 ‘유기체가 일련의 물리적 과정을 통해 그것의 정적이고 패턴화된 흔적을 둘에 남기면서 형성된 동물과 식물에 대한 기록, 즉 그 유기체와 그 외의 자연적 과정이 남긴 물리적 결과물’(Shipman, 1981; Patrik, 1985: 33에서 재인용)로 이해할 수 있다. 빈포드가 고고학 자료를 ‘과거에 작용했던 인과적 조건들의 충실한 흔적’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면 패트릭이 과정주의 고고학의 자료 인식을 이처럼 ‘화석’에 빗대어 설명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대한 정보).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사 고고학에서는 1)과 2)의 정보가 고고학 자료의 의미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정주의 고고학은 3)의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3)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삼엽충의 생존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추가적인 정보의 필요성이 과정주의 고고학의 해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위에 언급했듯이, 과거 문화체계를 구성하는 조건들이 사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사건은 다시 물질적 흔적을 남기는데, 이 흔적이 바로 고고학 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고학 자료로부터 과거에 작동했던 조건들이나 그것으로 구성된 문화체계를 해석하는 것은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하는 작업이 된다. 그런데 패트릭(Patrik, 1985: 47-8)이 지적했듯이,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훨씬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실제로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결과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추론의 고리가 필요하다.

과정주의 고고학의 해석이 필요로 하는 이 추가적인 추론의 고리를 제공하는 것이 ‘유추’이며, 특히 ‘형태 유추’(formal analogy)와 ‘확률 유추’(probability analogy)라고 부를 수 있는(Hodder, 1982b) 두 종류의 유추가 사용된다.<sup>9)</sup> 형태 유추는 ‘두 개의 사물 혹은 상황 사이에서 유사성이 일부 확인되면, 아마도 다른 측면에서도 유사성이 있을 것’<sup>10)</sup>(*ibid.*: 16)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유추로, 그 성격이 매우 단편적이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는 형태 유추를 통해 지면에서 확인되는 작은 원형의 수혈이 기둥 구멍임을 추론하게 된다. 이렇듯 형태 유추는 과거 인간의

9) 호더는 형태 유추 및 확률 유추 이외에도 ‘상관 유추’(relational analogy)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주로 탈과정주의 고고학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과정주의 고고학에 관한 본 논의와는 관련이 없어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10) ‘it is suggested that, if two objects or situations have some common properties, they probably also have other similarities’

행위에 대한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고고학 해석의 기본적 구성 요소이다 (파커 피어슨, 2009: 66). 그런데 과정주의 고고학자들이 정적인 고고학 자료로써 역동적인 과거의 모습을 추론해 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유추가 요구되는데, 확률 유추가 바로 그것이다.

확률 유추는 범문화적 일반화를 통해 얻어지는 유추로, 특히 과정주의 고고학에서는 중위 이론을 통해 이러한 확률 유추가 적용된다(Gould and Watson, 1982). 즉, 민족지 조사나 실험고고학의 결과들에 대한 일반화를 통해 세워진 일련의 준칙들이 확률 유추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과정주의 고고학자들은 중위 이론을 통해 얻어진 이러한 준칙들을 이용함으로써 어떠한 인과적인 관계들 속에서—즉, 어떠한 원인의 결과로—현재의 고고학 자료가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sup>11)</sup> 결국 과정주의 고고학에서는 이러한 확률 유추가 사용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거의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조건들의 총체, 즉 과거의 문화체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정주의 고고학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확률 유추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중위 이론을 통해 확보된 준칙들은 경험적으로 형성된 일반화일 뿐, 시·공간적 보편성이 보장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반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렌프류(Renfrew, 1976)가 유럽의 대서양 연안을 중심으로 축조된 신석기시대 거석 기념물의 축조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던 ‘거석 기념물에는 친족 집단의 조상이 투영되어 있으며, 그 조상이 주변 영역에 대한 사용권을 정당화 한다’라는 준칙은 확률적으로는 맞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것이 늘 성립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중위 이론을 포함한 확률 유추가 ‘결과로부터 원인의 추론’이라는 과정주의 고고학 해석의 핵심 과정을 입증해 줄만한 논

11) 참고로 이러한 준칙의 대표적인 예로 한국 고고학에서도 꽤 잘 알려져 있는 테인터(Tainter, 1978)의 장례 습속에 관한 준칙(파커 피어슨, 2009: 59, 140-1 참고)을 들 수 있다.

리적 힘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Wylie, 1985).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고학자들은 확률 유추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 단점보다는—즉, 추론에 있어서 논리적 결함의 가능성보다는—그리한 확률 유추를 이용할 경우 고고학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과거에 대한 역동적이고 풍부한 이해라는 장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하다. 바로 이 때문에 고고학 해석의 중심에는 여전히 확률 유추가 자리 잡고 있다.

정리하자면, 과정주의 고고학에서는 고고학 자료의 ‘의미’가 그 자료에 내재해 있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몇 발자국 (과거의 인과적 조건들과 문화체계의 형태로) 떨어져 있는데, 이 때문에 고고학 자료와 그것의 의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의 고리가 필요하다. 그 고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첫째는 ‘현재의 정적인 고고학 자료’와 ‘과거의 역동적인 체계 및 조건’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된 ‘인과적 관계’이고, 둘째는 결과가 되는 전자로부터 원인이 되는 후자를 추론하게 해주는 ‘확률 유추’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리들은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문제의식의 결과로 대안적 접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중 과정주의 고고학의 패러다임 내에서 등장한 대안적 혹은 보완적 접근으로는 행위고고학과 다윈 진화고고학이 있으며, 과정주의 고고학의 패러다임 그 자체를 부정하며 떠오른 대안적 접근으로는 맥락적 고고학이 있다.

#### 4.2. 행위고고학의 자료 인식

행위고고학에서 고고학 자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신고고학에 대한 행위고고학자들의 비판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신고고학에서 고고학 자료가 마치 화석과 같이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그 이유는 고고학 자료가 ‘변형’을 거치는 만큼 과거의 ‘충실한 흔적’이 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쉬퍼(Schiffer, 1976: 11-12)가 빈포드를 직

접 인용하면서까지 제시했던 다음과 같은 비판에서 이러한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신고고학의 초기에는 그 주된 방법론적 원칙들이 빈번하고도 무비판적으로 반복 제시되었다. 그러한 원칙 중 하나에 대해, 어쩌면 가장 명쾌하게, 빈포드(1964: 425)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양한 구조의 집단들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서로 다른 작업들을 할 때 일어났던 도구와 시설의 손실, 파손 그리고 분실은 멸종된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화석’과 같은 기록을 남긴다.

흔히 그러하듯이… 이 원칙이 거짓임을 깨달은 고고학자들은 몇 안 된다. 그것이 거짓인 것은 고고학 잔해물이 아무쪼록 화석화된 문화체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물이 제작되어 사용되는 그 기간 동안, 또한 그것이 고고학자에 의해 발굴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그것은 공간적, 계량적, 형태적, 그리고 관계적 변형을 일으키는 일련의 문화적 및 비문화적 과정들을 겪게 된다.<sup>12)</sup>

그런데 빈포드(Binford, 1981)가 반박했듯이, 이러한 비판은 신고고학

---

12) “The early years of the new archaeology witnessed the frequent and unquestioning repetition of major methodological principles. One such principle was enunciated by Binford(1964: 425) in perhaps its most explicit form:

The loss, breakage, and abandonment of implements and facilities at different locations, where groups of variable structure performed different tasks, leaves a ‘fossil’ record of the actual operation of an extinct society.

As often happens… few investigators have noticed that the principle is false. It is false because archaeological remains are not in any sense a fossilized cultural system. Between the time artifacts were manufactured and used in the past and the time these same objects are unearthed by the archaeologist, they have been subjected to a series of cultural and noncultural processes which have transformed them spatially, quantitatively, formally, and relationally…”

이 고고학 자료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신고고학에서는 고고학 자료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과거의 행위나 사건의 복원이 아니라<sup>13)</sup> 과거 문화체계 혹은 그 문화체계의 작동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따라서 이 경우, 전자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왜곡들은 일단 논의의 대상이 된다. 또한 후자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왜곡들은 문화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인 만큼(*ibid.*: 200) 역시 해석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빈포드는 쉬퍼 등이 제기한 비판을 ‘복원주의’(reconstructionism)의<sup>14)</sup> 입장에서 있는 이들의 쓸데없는 환멸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ibid.*: 205). 그렇다면 행위고고학자들이 생각한 고고학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로부터 파생된 그들의 자료 인식은 어떠한가?

초기의 행위고고학자들은 고고학을 ‘인간행위와 물질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sup>15)</sup>(Reid *et al.*, 1975: 864)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그에 맞추어 행위고고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인간 행위를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 그 어떤 시공간적 맥락이든 상관없이, 진행되는 물질 자료의 연구’<sup>16)</sup>(*ibid.*)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우선 주목되는 점은 고고학 연구의 초점이 더 이상 과거의 문화체계에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로써 고고학 자료는 과거 ‘문화’를 반영하는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고고학

13) 그 이유를 풀어쓰자면, 하나의 고고학 자료 세트가 축적되는 속도(템포)와 개인 단위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는 속도(템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고고학 자료를 통해 선사시대 생활양식(prehistoric lifeways)을 복원하는 것은 고고학의 연구 목적으로는 부적절하다(Binford, 1981: 197).

14) 참고로 빈포드는 미국고고학회의 제50주년 기념 학회에서 과정주의 고고학을 위협하는 두 개의 주적으로 탈과정주의 고고학으로 대변되는 ‘상대주의’와 행위고고학으로 대변되는 ‘복원주의’를 지목했다고 한다(McGuire, 1995: 163).

15)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havior and material culture’

16) ‘the study of material objects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in order to describe and explain human behavior’

자는 그러한 관계맺음이 필요로 하는 추론의 고리를 더 이상 제시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대신 고고학 연구의 초점이 물질문화와 인간행위의<sup>17)</sup> 상호작용으로 옮겨지면서, 고고학 자료는 ‘인간행위’를 반영하는 물질적 흔적으로 이해되었다.

행위고고학의 패러다임에서와 같이 고고학 자료가 인간행위의 흔적으로 인식될 경우,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은 신고고학자들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과제에 비해 더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해석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론의 성격이 덜 복잡하기도 하지만,<sup>18)</sup> 과거 인간행위가 물질적 흔적을 남기고, 또한 그 흔적이 고고학 자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왜곡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성공적인 역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고고학 자료를 남겼던 체계 맥락(systemic context)이 현재의 고고학 자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행위고고학자들은(트리거, 2010: 403) 고고학 자료를 구성하는 물질문화가 체계 맥락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 또한 그것이 어떠한 방식과 과정을 통해 고고학 자료가 되어갔는지를 고려함으로써 그러한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들을 확인하는 것에(*ibid.*: 405) 연구의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행위고고학은 고고학 자료로부터 그 의미가 되는 ‘인간행위’를 추론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왜곡’을 역추적 하는 세련된 방법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sup>19)</sup> 따라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다분히 성공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를 통한 인간행위의 복원을 고고학 연구의 본질이

- 
- 17) 쉬퍼는 ‘행위’를 ‘인간과 사물 사이의 상호작용’(people-object interaction)으로 정의한 바 있다(LaMotta and Schiffer, 2001: 16).
- 18) 물질자료로부터 그것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행위를 추론하는 작업이 물질자료로부터 그것을 파생시킨 문화체계를 추론하는 작업보다는 더 쉬운 일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할 것이다.
- 19) 참고로 한국고고학계 내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문화변환(C-transforms)과 자연변환(N-transforms)와 관한 연구 및 실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 첫걸음으로 삼은 행위고고학(McGuire, 1995: 165)의 한계 역시 분명하다. 행위고고학자들은 해석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행위에 대한 원칙들을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라가는(bottom-up) 자신들의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top-down) 일반법칙을 적용하는 신고고학의 방식보다 더 유용하다고 한다(*ibid.*: 164). 또한 ‘행위’를 고고학적 분석의 단위로 삼을 경우, 그 단위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다수의 문화체계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LaMotta and Schiffer, 2001). 하지만 맥과이어(McGuire, 1995: 166)가 지적했듯이, 행위고고학자들이 복원한 인간의 행위는 ‘행위 변동의 법칙’이라고 명명된(Schiffer, 1992: 141) 아주 추상적인 원칙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될 뿐, 인간의 의식적이거나 능동적인 선택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고고학이 “행위를 복원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McGuire, 1995: 166). 특히 이러한 설명의 부재는 탈과정주의 고고학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정주의 고고학의 범주에 속해 있는 다윈 진화고고학에서도 제기되었던 비판이다.

#### 4.3. 다윈 진화고고학의 자료 인식

다윈 진화고고학은 ‘다윈’이나 ‘진화’와 같은 단어들이 주는 인상으로 인해 다소 거리감 있게 느껴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최소한 이론적으로는—인류 역사의 전 시대에 걸쳐 형성된 다양한 고고학 자료에 적용될 수 있는 고고학적 접근으로, 필자가 보기엔 ‘재무장한 문화사고고학’이라는 비유가(성춘택, 2005: 609) ‘고고학 자료를 통해 무엇을 알아내고자 하는가’의 측면에서는 그것의 본질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인 듯하다. 이는 다윈 진화고고학이, 가장 쉽게 풀어 말하자면, ‘고고학 자료에 나타나는 문화전통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이다(렌프



류·반, 2010: 67). 그렇다면 이러한 궁극의 목표를 가진 다윈 진화고고학에서 고고학 자료는 어떻게 인식되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가?

다윈 진화고고학에서 문화전통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화전통의 흥망성쇠를—즉, 그것의 ‘변화’ 양상을—추적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고고학 자료상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오브라이언·라이언, 2005: 308).<sup>20)</sup> 이는 이렇게 확인·측정된 변이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빈도의 차이를 곧 ‘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성춘택, 2003: 116). 결국 다윈 진화고고학자들은 변이들의 존속·변화·대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그 변이의 계보들이 왜 서로 다르게 지속되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ibid.*: 122; O'Brien *et al.*, 1998: 487) 문화전통의 ‘역사’에—다시 말해, 그것의 ‘변화’에—다가서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본 논문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변화에 접근하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이러한 변이가 과거에 존재했던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현재의 고고학 자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유추’와 같은 고리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고고학 자료에 대한 ‘관찰’의 결과로 추론되는 것이다(성춘택, 2003: 115-116).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다윈 진화고고학에서는, 앞서 살펴본 문화사 고고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고학 자료의 ‘의미’가 그 자료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결국 유물주의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다윈 진화고고학에서 해석이란 고고학 자료로부터 관찰되는 현상의 파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해석의 과정은 꽤 ‘간단’(straightforward)하며, 이러한 해석상의 간

20) 이는 진화이론을 수용한 입장에서는 변화를 ‘시간 궤도상 변이들의 차별적인 지속’(differential persistence)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Dunnell, 1980: 38; 성춘택, 2003: 126에서 재인용).

단함은 이 접근의 강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윈 진화고고학에서는 고고학 자료의 의미가 그 자료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해석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추론의 고리를 제시할 필요도 없고, 의미전달을 방해할 수 있는 자료상의 왜곡에 대한 역추적도 필요 없다. 그리하여 과정주의 고고학의 범주에 속해 있는 다른 접근들이 안고 있는 해석상의 난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 말고도 다윈 진화고고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해석적 강점은 고고학 자료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시간’이라는 변수를 다룬다는 점이다.<sup>21)</sup> 사실 고고학 자료가 역사성을 가진 인간의 산물인 만큼, 그것에 대한 해석에서 시간간성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과정주의 고고학의 다른 접근들에서 ‘시간’이라는 차원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성춘택, 2005: 611~612)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다.<sup>22)</sup>

다윈 진화고고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해석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참고로 한국어로도 번역된 『다윈 진화고고학』(*Applying Evolutionary Archaeology: A Systematic Approach*)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례연구의 보충이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윈 진화고고학에서 해석의 과정은 과정주의 고고학의 범주에 속해 있는 다른 접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간단’하다는 것은 결코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실, 다윈 진화고고학만큼이나 방대한 양의 꼼꼼하게 생성된 고고학 자료를

21) 앞서 언급했듯이, 다윈 진화고고학에서는 ‘시간’ 궤도상에서 변이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지속’되는지를 살펴본다.

22) 참고로 이는 ‘과학적’이고자 했던 신고고학자들이 그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리 실증주의라는 과학철학을 빌려왔기 때문인데, 인간행위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을 찾는 이러한 물리화학의 입장은 주지하다시피 시간의 흐름과 공간적 변이를 찾는 고고학에는 부적절하다. 반면, 다윈 진화고고학자들은 시간성과 변이를 다루는 진화생물학의 모델을 수용함으로써 과학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성춘택, 2003: 117).

필요로 하는 접근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 자료는 시간적 해상도가 매우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능이나 기술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고고학 자료는 다윈 진화고고학의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한다 (O'Brien, 1996: 1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정주의 고고학의 제 접근들은 고고학 자료에 대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의미에 대한, 서로 다른 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접근에서 ‘고고학적 해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편, 탈과정주의 고고학의 패러다임 내에서도 고고학 자료와 그 의미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그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다.

## 5. 탈과정주의 고고학의 여러 접근들과 그 자료 인식

탈과정주의 고고학의 범주 안에는 과정주의 고고학에 대한 의식적인 대안들은 물론, 그러한 대안들에 대한 비판이 낳은 또 다른 대안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접근들은 고고학의 여러 지점들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에서 나온 것인 만큼, ‘고고학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 논문에서 그 모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필자가 보기에 탈과정주의 고고학의 제 접근들 중, 고고학 자료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으로 특징지어지는 맥락적 고고학,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그리고 규정적 접근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5.1. 맥락적 고고학의 자료 인식

탈과정주의 고고학의 여러 경향들 중 호더가 제창한 ‘맥락적 고고학’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고고학 자료에 접근하고 있다. 즉, 고고학 자료를 일종의 ‘문헌 기록’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맥락적 고고학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 조성된 물질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도 연관이 있다. 이 새로운 이해에 의하면, 물질문화는 그것을 생산해낸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은 그 사회의 재생산과 변화를 유도하는 숨겨진 의도들도 담고 있다. 즉, 물질문화는 ‘의미를 가지도록 형성된’(meaningfully constituted) 것이다(Hodder, 1982c: 15). 바로 이러한 이론적 분위기 속에서 과거의 물질문화에 해당되는 고고학 자료의 의미도 그것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의 생산과 사용의 기저에 있었던 생각과 의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맥락적 고고학의 구상이 정착된 것이다(Johnson and Olsen, 1992).

맥락적 고고학에서는 이렇듯 과거 인간의 생각과 의도까지 고고학자가 추구할 수 있는 ‘의미’로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역사학자 콜링우드(Collingwood, 1946)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호더는 맥락적 고고학을 제창하면서 콜링우드의 역사적 관념론으로부터 몇 가지 요소를 빌려왔다. 그중 하나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의 ‘외관’, 즉 사건의 실제 경위뿐만 아니라 그것의 ‘내부’, 즉 사건의 기저에 있었던 생각과 의도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콜링우드의 주장은 맥락적 고고학의 자료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맥락적 고고학에서의 연구는 그래서 상징이나 기호의 형태로 존재하는 고고학 자료의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면 이런 숨겨진 의미는 고고학 자료로부터 어떻게 얻어내는가? 맥락적

고고학에서는 과거에 살았던 능동적 개인들(agents)의 의도와 생각이 고고학 자료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고학자의 해석적 역할이란 이러한 의도와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호더가 설파한 초기의 맥락적 접근에 의하면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물질문화를 그것을 생산 혹은 사용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인데(Hodder, 1986), 사실 이러한 방식의 고고학 해석은 콜링우드의 역사적 관념론 중 ‘재현’(reenactment)의 개념을 도용한 것이기도 하다(Johnson and Olsen, 1992: 425).

과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 이상의 주관적 맥락에 대해 인지하고, 그 서로 다른 관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인간의 지적인 능력’<sup>23)</sup>(Hodder, 1986: 170)을 필요로 한다. 존슨과 올슨(Johnson and Olsen, 1992)은 이와 같은 지적 능력을 ‘객관적 사고’(objective mind)라고 불렀는데, 고고학 자료를 읽는 ‘주관적 독자’가 이러한 ‘객관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바로 이 점에 대한 회의로부터 맥락적 고고학의 해석 방법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일어났다. 또한 고고학자의 ‘객관적 사고’가 과거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만큼, 하나의 고고학 자료로부터 서로 상충되는 다수의 ‘해석’들이 나오는 문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Buchli, 1995).

맥락적 고고학의 해석 방법에 대해 제기된 위의 두 가지 비판들 중, 호더는 특히 후자에 대해 자세히 반박했다. 사실 전자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호더의 맥락적 접근 자체가 그러한 ‘객관적 사고’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맥락적 고고학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객관적 사고’의 타당성에 대

---

23) ‘the human mental ability to conceive of more than one subjective context and criticall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ed perspectives’

해 논쟁하는 것 자체가—마치 ‘현생인류의 기원과 진화’ 수업 도중에 창조론자가 제기하는 진화론의 타당성에 관한 질문처럼—무의미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필자도 그보다는 ‘객관적 사고’로 무장한 고고학자가 과연 과거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호더에 의하면 사람들은 특정한 ‘의미구조’(structures of meaning)를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 대해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틀은 분명히 자의적이며 역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사회적 행위에 관여하기 때문에 물질문화에 패턴화된 흔적을 남긴다(Hodder, 1991: 13). 따라서 만약 ‘그 어느 대상이든 그것을 감싸고 있는 유의미한 변이들과 그것들의 다양한 차원들의 총체’<sup>24)</sup>를(Hodder, 1986: 139)—즉, 우리가 흔히 고고학에서 ‘맥락’이라 하는 것을—최대한 완전하게 확인한다면, 과거 사람들의 의미 구조에 접근하여 그들이 의도했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호더가 주장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과정주의 고고학과 맥락적 고고학 사이에서 의외로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두 접근 모두 고고학 자료의 ‘의미’가 그것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과정주의 고고학에서는 과거의 인과적 조건들과 문화체계의 형태로, 그리고 맥락적 고고학에서는 과거 사람들이 의도했던 의미의 형태로), 고고학 자료와 그 의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석의 고리가 요구된다. 과정주의 고고학에서는 ‘자료와 의미 사이의 인과적 관계’와 ‘확률 유추’가 이것을 제공해 준다. 또한 맥락적 고고학에서는 고고학자의 ‘객관적 사고’와 ‘맥락’이 이것을 제공해 준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둘 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두 접근이 공유하고 있는, 고고학 자료로부터 분리된 의미에 대한 이해가 각각의 접근에서 해석적

24) ‘the totality of the relevant dimensions of variation around any subject’

취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2.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의 자료 인식

고고학 자료와 고고학 의미 사이에 성립된 이와 같은 양분법으로부터 야기되는 해석상의 문제를 일부 탈과정주의 고고학자들은 일찍이 인식했다. 예를 들어, 생스와 톨리는 고고학에서 연구자와 자료, 주체와 객체 사이에 전통적으로 성립된 양분법을 극복하는 새로운 철학의 필요성을 설파했다(Shanks and Tilley, 1987: 103-15). 그 결과 고고학 자료를 의미에 대한 접근을 위한 인식의 도구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부터 의미가 나오는 것으로 보는 시도들이 나타났는데, 톨리(Tilley, 1994; 1996; 1999; 2004a; 2004b)와 토마스(Thomas, 1993a; 1993b; 1996; 2004)가 발전시킨 소위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이 그중 하나이다.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은 사물의 의미가 그것의 ‘본질’에 있기 보다는 그 사물로부터 비롯된 ‘현상’에 있다고 본 현상학 철학의 입장을 고고학에 적용시키면서 성립되었다. 참고로 뒤에서 검토할 ‘규정적 접근’도 이러한 현상학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고학에서 이처럼 본질 보다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현상학의 입장이 적용될 경우, 고고학 자료의 ‘의미’는—그것이 과거의 물질문화에 해당되는 만큼—그것을 사용한 과거 사람들이 경험했던 ‘현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고고학 자료의 의미를 과거에 경험된 현상에서 찾을 경우, 그러한 현상이 과거의 물질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의미’는 곧 과거의 물질문화이기도 한 고고학 자료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현상학 철학을 고고학에 도입할 경우, 과정주의 고고학과 맥락적 고고학의 해석 방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고고학 자료와 그 의미 사이의 양분법에 대한 극복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와 같은 현상학의 입장이 고고학에 도입될 경우, 고고학자에게는 더 큰 해석적 역할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의미’에 해당되는 현상은 인간이—그것이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고고학자이든—사물과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의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이 방법은 ‘고고학자와 고고학 자료의 상호작용 속에서 비롯되는 현상이 과거 사람들이 그 자료와 관계를 맺었을 때 비롯되었을 현상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제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동일한 사물이라 할지라도 과거 사람들이 그것과 관계를 맺었을 때 일어났을 현상과 현재의 고고학자가 그것과 관계를 맺을 때 경험되는 현상이 동일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김종일, 2006: 123).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맥락적 고고학의 경우에는 현재의 고고학자가 과거 사람의 입장에 서서 고고학 자료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할 때—물론 이 경우에는 현재의 고고학자가 찾고자 했던 것이 과거에 경험된 현상이 아니라 과거 사람들의 의도이지만—과거의 ‘의미구조’가 맥락을 통해 이해될 수 있어 그 해석은 신빙성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되었다. 그렇다면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접근들의 경우, 이와 같은 해석의 방법은 무엇을 근거로 그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배럿(Barrett pers. comm.)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구조와 두뇌구조는 어느 정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몇 가지 신체적 경험의 범주에서는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기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가 접근하기가 매우 힘든 지점에 그림을 그릴 때 경험했을 현상들 중 일부는 같은 동작을 하는 현대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도 공유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고학 해석의 유의미한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떠한 성격의 현상들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과 뒤에서 살펴볼 ‘규정



적 접근'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은 말 그대로 '경관'과 관련된 시각적 현상들에서 고고학 자료의 의미를 찾는다. 즉, 선사시대 거석 기념물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그리고 사실은 이를 위해 고안된—이 접근에서는 과거 사람들이 거석 기념물과 관계를 맺었을 때 일어났을 시각적 현상들에서 거석 기념물의 의미를 찾으며, 특히 주변의 경관과 관련된 시각적 현상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고고학 자료의 해석 방법으로 특히 시각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재현한다는 것, 게다가 좁은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현상이 아니라 매우 넓은 범위인 '경관' 내에서 일어나는 시각적 현상에서 의미를 찾는다라는 점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McGlade, 1995; 1999). 우선, '시각'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것으로, 우리 두뇌는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의식하지는 못한다. 무엇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지는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석을 하는 고고학자도 이러한 '선택적 시각'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에 가해진 가장 통렬한 비판도 이러한 측면에서 비롯되었다. 즉, 플레밍(Flemming, 1999; 2005)은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에 기반한 연구들에서 해석의 대상이 되는 거석 기념물들을 직접 방문한 다음, 저자들이 제시했던 경관과 관련된 시각적 경험과 자신의 시각적 경험을 비교하면서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지적했다. 현재 고고학자의 시각적 경험이 과거 사람들에게 의해서도 공유되었는지의 문제를 떠나, 그러한 현상이 현재의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낸 플레밍(Flemming, 1999; 2005; 2006)의 노력은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이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시각적으로 경험되는 현상은 그것의 '배경'이 되는 곳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현재 고고학자의 시각적 경험이 과거 사람들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곳의 지형학적, 생물학적 환경 역시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해야만 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으로부터 나온 해석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행히 킬리와 토마스에 이어 이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커밍스(Cummings, 2000; Cummings and Whittle, 2004; Cummings *et al.*, 2002)의 연구를 보면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방법론적 교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해석적 방법이 아주 한정된 종류의 자료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이 접근에서 해석의 중심에 있는 것은 고고학 자료 자체로부터 나오는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그 고고학 자료의 경관 속 입지로부터 나오는 시각적 경험이다. 따라서 ‘입지’는 고고학 자료 해석에 있어서 감안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입지라는 것이 아예 없는 건축물 이외의 고고학 자료에는 이 접근을 적용할 수가 없다. 결국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은 고대 경관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고, 고환경에 대한 자료도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그 입지가 분명한 거석 기념물에 대한 해석이 고고학 담론의 중심에 있는 영국 고고학의 상황에 최적화된 연구 경향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 있는 고고학적 접근 중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 5.3. 규정적 접근의 자료 인식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상학 철학의 영향을 역시 받으면서도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고고학 자료의 ‘의미’를 찾아 내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다. 그런데, 최소한 필자가 파악하기에는, 이

시도들을 통칭할 수 있는 명칭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제출된 바 없다. 이는 아마도 이 시도들에 상당한 이론적 영향을 끼치며 일종의 매니페스토 역할을 했던 배럿(Barrett, 1994)의 『고대로부터 온 파편들』(*Fragments from Antiquity*)에서, 그 책이 악랄할 정도로 난해하다는 평에 걸맞게, 저자의 이론적 입장이-틸리(Tilley, 1994)의 『경관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Landscape*) 경우와는 달리-특정한 표어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학사적 차원에서 이 시도들을 한데 묶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그 시도들을 묶어 부를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고학 자료의 본질적 특징이 과거 인간 행위에 대한 ‘규정’(structure)이라는 배럿(Barrett, 2005; 2006a, 2006b; Barrett and Ko, 2009)의 이론적 입장을 따라 ‘규정적 접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규정적 접근의 시도들은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다만 현상학의 원리를 고고학 해석의 도구로 전환하는 데서 상이한 방식을 택했다. 즉, 고고학 자료로부터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의 방법을 보면, 규정적 접근에서는 현상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 ‘사물의 경관 속 입지’가 아니라 ‘사물 그 자체’로부터 나온 현상을 중심으로 고고학 자료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따라서 이 접근에서는 우선 시각적으로 경험되는 것 이외의 현상들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스톤헨지로 연결되는 ‘접근로’의 경우, 의미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며 신체적으로 경험되는 현상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을 지어 걷게 하며, 열이라는 것에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과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스톤헨지의 접근로가 사용되었을 무렵이 바로 이 지역에서 사회의 계층적 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시점인 것을 감안하면, 제의적 맥락에서 진행되었을 행렬 속의 순서 매김은 사회 내의 순서 매김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했

우리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여기에서 그 접근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Barrett, 1994).

한편, 사물 그 자체로부터 나온 현상을 중심으로 고고학 자료의 의미를 찾을 경우 다양한 종류의 물질문화에 대한 해석도 가능해진다. 가령, 건축물보다 훨씬 더 자주 발견되는 토기에 대해서도 현상 중심의 의미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궁전에서 나온 전기 미노아 단계 토기들에서 포착되는 통시적 변화를 토기 사용자의 입장에서—다시 말해, 토기를 사용하면서 경험했을 현상을 중심으로—접근한 데이와 윌슨(Day and Wilson, 2004)의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즉, 이들은 이 단계에서 확인되는 토기 자료상의 변화들을<sup>25)</sup> 살펴보는 데 있어 토기의 크기는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접근하고, 또한 문양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접근하면서 각 종류의 토기와 관련되었을 행위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명이 음식 및 음료의 섭취와 관련된 용기들을 함께 사용하다가 점차 개인용 술잔과 앞 접시가 사용되기 시작한 현상, 그리고 주구가 강조된 주전자 형태의 용기를 이용해 술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중시되기 시작한 현상을 확인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토기로부터 비롯된 이 현상들을 바탕으로 사회 복합화가 진행되었던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잔치’라는 사회적 장(場)에서 개인의 먹고 마시는 행위가 사회적 서열화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고 보았다.

위의 사례들에는 규정적 접근의 해석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고고학 자료의 물질적 특징들 중 과거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데 관여했

25) 술잔의 소형화, 대각 술잔의 등장, 완의 등장, 주구가 강조된 주전자 형태의 술 따르는 용기의 등장 및 그 주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길어졌다는 사실, 문양 시문이 토기의 구연부, 주구, 그리고 완의 내부에 점차 집중되었다는 사실, 양식적으로 통일성을 보이는 음료 섭취 세트(술잔과 주전자)의 등장 등을 들 수 있다.

을 특징들을 확인한다 → 2) 그러한 물질적 특징들이 규정했을 행위들을 확인한다 → 3) 그러한 행위들이 규정했을 경험들을 확인한다 → 4) 그러한 행위들과 경험들, 즉 고고학 자료로부터 비롯된 ‘현상’들이 규정했을 결과들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들로부터 고고학 자료의 ‘의미’를 찾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고학 자료에 대한 해석이 진행될 경우, 경관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이 가지는 취약점인 ‘고고학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오명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세분화된 해석의 고리에서는 진정한 인과적 관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이라는 단서에 입각해 행위와 경험의 가능성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은 어느 정도는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해석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규정적 접근의 ‘의미’는 기존의 접근들에서 제시되었던 ‘의미’와 그 성격이 다르다. 즉, 배럿은 “유물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을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해석할 때 비로소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것들은 사회적 삶의 전략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sup>26)</sup>(Barrett, 1994: 168-169)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고고학 자료의 의미는 그 사물의 원래 의도보다는 사람이 그것과 관계를 맺었을 때 일어나는 ‘현실’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물론 이 둘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스톤헨지 접근로의 예로 돌아가면, 그 접근로의 실제 의미는 그것이 처음 조성되었을 당시의 의도인 그냥 ‘길’이 아니라, 그 사용 도중에 비롯되는 ‘사람들의 순서 매김’이라는 현상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가 ‘사회 차별화의 메커니즘’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결국 배럿(Barrett, 1998; 2000;

26) “Artefacts mean nothing. It is only when they are interpreted through practice that they become invested with meanings and may then act as the props for the strategies of social life.”

2005; 2006a, 2006b; Barrett and Ko, 2009)은 고고학 자료의 ‘의미’에 대해 이런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도를 다루는 고고학’(an archaeology of motivation) 대신 ‘인간의 가능성을 다루는 고고학’(an archaeology of possibilities)로의 전환을 주장했던 것이다.

## 6. 맺음말

필자가 본고를 통해 의도했던 바는 현대고고학의 제 접근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고학 자료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고학 해석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만약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서로 다른 접근들로부터 나온 동일한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이며—‘고고학의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아주 원론적인 문제를 떠난다면—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을 것이다. 이렇듯 ‘틀림’이 아닌 ‘서로 다름’에 대한 인식이 공유된다면, 한국고고학계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들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필자의 소박한 판단이었다. 이러한 구상을 좀 더 제대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제시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을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협업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가능성 모색을 위한 이론적 검토를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연구 대신 ‘토기분석’이라는 테마를 통해 필자가 가지고 있는 ‘공생’의 모델을 아주 간단히 그려내며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토기의 생산, 유통 및 사용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토기분석 분야에

서는 서로 다른 관찰의 해상도를 갖는 분석 도구들을 사용한다. 사람의 눈, 실체현미경, 편광현미경, 전자주사현미경 등이 그것인데, 이 도구들은 처음부터 토기 자료로부터 알아내고자 하는 바에 맞게 선택된 관찰의 수단인 만큼,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정보의 성격 또한 당연히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가령 사람의 눈으로는 토기의 전반적인 형태나 문양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기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는 형식의 분류나 기능의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실체현미경으로 이용해서는 토기의 접합부위나 미세한 표면마무리 흔적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토기의 성형기법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편광현미경을 이용해서는 토기의 태토 구성성분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바탕흙과 첨가제의 배합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전자주사현미경을 통해서서는 아주 높은 해상도로 토기의 미세조직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기의 표면처리나 소성온도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듯, 관찰의 도구가 가지고 있는 ‘초점’의 차이로 인해, 그것이 생산해 내는 정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정보의 차이는 상호배타인 차이가 아니라 단지 ‘서로 다름’의 차이일 뿐이다. 바로 이 때문에 서로 다른 관찰의 도구를 이용한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 결과물을 공유해가며 토기의 생산과 유통과 사용의 전 과정에 관한 좀 더 풍요롭고 다각적인 이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 참고문헌

- 김종일(2006),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 가능성」, 『한국고고학보 58』, 110-145.
- 마이클 파커 피어슨 저, 이희준 역(2009), 『죽음의 고고학』, 사회평론.
- 마이클 오브라이언·리 라이먼 저, 성춘택 역(2005), 『다윈 진화고고학』, 나남.
- 매튜 존슨 저, 김종일 역(2009), 『고고학 이론: 입문』, 고고.
- 브루스 트리거 저, 성춘택 역(2010), 『브루스 트리거의 고고학사』, 사회평론.
- 성춘택(2003), 「다위니즘과 진화고고학의 원칙」, 『호남고고학보 17』, 113-133.
- 성춘택(2005), 「다위니즘으로 고고학하기」, 『다윈 진화고고학』(마이클 오브라이언·리 라이먼 저, 성춘택 역), 603-615.
- 콜린 렌프류·폴 반 편저, 이성주·김종일 역(2010), 『고고학의 주요 개념』, 고고.
- Barrett, J. C.(1998), “Fields of discourse: Reconstructing a social archaeology”, *Critique of Anthropology* 7, 5-16.
- \_\_\_\_\_ (1994), *Fragments from Antiquity: An Archaeology of Social Life in Britain, 2900-1200 BC*. Oxford: Blackwell.
- \_\_\_\_\_ (2000), “A thesis on agency”, In M.-A. Dobres and J. E. Robb (eds.) *Agency in Archaeology*, pp. 61-68. London: Routledge.
- \_\_\_\_\_ (2001), “Agency and the archaeological record”, In I. Hodder (ed.) *Archaeological Theory Today*, pp. 141-164.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05), “Material culture, humanity and the beginnings of the Neolithic”. In *Die Dinge als Zeichen. Kulturelles Wissen und Materielle Kultur. Internationale Fachtagung an der 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3.-5. April 2003*, pp. 407-420. Bonn: Universitätsforschungen zur prahistorischen Archäologie 127.
- \_\_\_\_\_ (2006a), “A perspective on the early architecture of western Europe”, In J. Maran, C. Juwig, H. Schwengel and U. Thaler (eds.) *Constructing Power: Architecture, Ideology and Social Power*, pp. 15-30. Hamburg: Lit Verlag.
- \_\_\_\_\_ (2006b), “Archaeology as the investigation of the contexts of humanity”,



- In D. Papaconstantinou (ed.) *Deconstructing Context: A Critical Approach to Archaeological Practice*, pp. 194 - 211. Oxford: Oxbow Books.
- Barrett, J. and Ko, I.(2009), "A Phenomenology of Landscape. A Crisis in British Landscape Archaeology?", *Journal of Social Archaeology* 9(3), 276-294.
- Binford, L.(1981), "Behavioral archaeology and the 'Pompeii Premise'",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37, 195-208.
- Buchli, V. A.(1995), "Interpreting material culture", In I. Hodder, M. Shanks, A. Alexandri, V. Buchli, J. Carman, J. Last, and G. Lucas (eds.) *Interpreting Archaeology: Finding Meaning in the Past*, pp. 181-193. London: Routledge.
- Childe, V. G.(1929), *The Danube in Pre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llingwood, R. G.(1946), *The Idea of Hist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Cummings, V.(2000), "Landscapes in motion. Interactive computer imagery and the Neolithic landscapes of the Outer Hebrides", In C. Buck, V. Cummings, C. Henley, S. Mills and S. Trick (eds.) *U.K. Chapter of Computer Applications and Quantitative Methods in Archaeology. Proceedings of the fourth meeting, Cardiff University, 27 and 28 February 1999*, pp. 11-20. Oxford: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International Series 844.
- Cummings, V. and Whittle, A.(2004), *Places of Special Virtue: Megaliths in the Neolithic Landscape of Wales*. Oxford: Oxbow.
- Cummings, V. A. Jones, and Watson, A(2002), "Divided places: Phenomenology and asymmetry in the monuments of the Black Mountains, southeast Wales",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12, 57-70.
- Day, P. E. and Wilson, D. E.(2004), "Ceramic Change and the practice of eating and drinking in Early Bronze Age Crete", In P. Halstead and J. C. Barrett (eds.) *Food, Cuisine and Society in Prehistoric Greece*, pp. 45-62. Oxford: Oxbow Books
- Fleming, A.(1999), "Phenomenology and the megaliths of Wales: A dreaming too far?", *Oxford Journal of Archaeology* 18, 119-125.
- \_\_\_\_\_ (2005), "Megaliths and post-modernism: The case of Wales", *Antiquity* 79, 921-931.
- \_\_\_\_\_ (2006), "Post-processual landscape archaeology: A critique",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16 (3), 267-280.

- Gould, R. A. and Watson, P. J.(1982), "A dialogue on the meaning and use of analogy in ethnoarchaeological reasoning",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 335-381.
- Hodder, I.(1982a), *The Present Past: An Introduction to Archaeology for Archaeologists*. London: Batsford.
- \_\_\_\_\_ (1982b), *Symbols in Action: Ethnoarchaeological Studies of Material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2c), "Theoretical Archaeology", In I. Hodder (ed.) *Symbolic and Structural Archaeology*, pp. 1-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Reading the P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1), "Interpretative archaeology and its role", *American Antiquity* 56, 7-18.
- Johnsen, H. and Olsen, B(1992), "Hermeneutics and archaeology: On the philosophy of contextual archaeology", *American Antiquity* 57 (3), 419-436.
- LaMotta, V. M. and Schiffer, M. B.(2001), "Behavioral archaeology: toward a new synthesis", In I. Hodder (ed.) *Archaeological Theory Today*, pp. 14-64. Oxford: Polity Press.
- McGlade, J.(1995), "Archaeology and the ecodynamics of human-modified landscapes", *Antiquity* 69: 113-132.
- \_\_\_\_\_ (1999), "Archaeology and evolution of cultural landscapes: Towards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agenda", In P. J. Ucko and R. Layton (ed.) *The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of Landscape: Shaping Your Landscape*, pp. 458-482. London: Routledge.
- McGuire, R.(1995), "Behavioral Archaeology: Reflections of a Prodigal Son", In J. M. Skibo, W. H. Walker and A. E. Nielsen (eds.) *Expanding Archaeology*, pp. 162-177.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 O'Brien, M. J.(1996),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n evolutionary archaeology", In H. D. G. Maschner (ed.) *Darwinian Archaeologies*, pp. 17-32. New York: Plenum Press.
- O'Brien, M. J., R. L. Lyman, and Leonard, R. D.(1998), "Basic Incompatibilities between Evolutionary and Behavioral Archaeology", *American Antiquity* 63(3), 485-498.
- Patrik, L. E.(1985), "Is there an archaeological record?",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8, 27-62.

- Reid, J. J., M. B. Schiffer, and Rathje, W. L.(1975), "Behavioral archaeology: four strategies", *American Anthropologist* 77, 864-869.
- Renfrew, C.(1976), "Megaliths, territories and populations", In S. De Laet (ed.) *Acculturation and continuity in Atlantic Europe*, pp. 198-220. Bruges: De Temple.
- Schiffer, M. B.(1992), *Technological Perspectives on Behavioral Change*.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Schiffer, M. B.(1976), *Behavioral Archae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Shanks, M. and Tilley, C.(1987), *Re-constructing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as, J.(1993a), "The hermeneutics of megalithic space", In C. Tilley (ed.) *Interpretative Archaeology*, pp. 73-97. Oxford: Berg.
- \_\_\_\_\_ (1993b). "The politics of vision and archaeologies of landscape", In B. Bender (ed.) *Landscape: politics and perspectives*, pp. 19-48. Oxford: Berg.
- \_\_\_\_\_ (1996). *Time, Culture and Identity: An Interpretative Archeology*. London: Routledge.
- Thomas, J.(2004), *Archaeology and Modernity*. London: Routledge.
- Tilley, C.(1994), *A Phenomenology of Landscape: Places, Paths and Monuments*. Oxford: Berg.
- \_\_\_\_\_ (1996), *An Ethnography of the Neolith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Metaphor and Material Cultur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_\_\_\_\_ (2004a), *The Materiality of Stone. Explorations in Landscape Phenomenology*. Oxford: Berg.
- \_\_\_\_\_ (2004b), "Round barrows and dykes as landscape metaphors",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14, 185-203.
- Wylie, A.(1985), "The reaction against analogy.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8, 63-111.

원고 접수일: 2012년 4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2년 5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4일

ABSTRACT

---

An examination of the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archaeological record’

Ko, Ilhong

The various approaches used to interpret the archaeological evidence are based on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archaeological recor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terpretativ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culture-historical archaeology and the various approaches of processual (the New Archaeology, behavioral archaeology, and Darwinian evolutionary archaeology) and post-processual archaeology (contextual archaeology, phenomenological approaches to the landscape, and a ‘structuring’ archaeology) with focus on the way in which the archaeological record is perceived. In doing so, it is hoped tha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approaches may be obtained, as well as the acknowledgement that, in the interpretation of a common data set, the dissimilar results produced by the various approaches should be regarded as being interpretations with different points of focus, rather than as being contrasting interpretations. It is suggested that this will help lay down the foundations for a mor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ous archaeological approaches currently in use within Korean archaeology.